



Received: 2026/05/12
Revised: 2026/05/23
Accepted: 2026/06/14
Published: 2026/06/30

***Corresponding Author:**

Woo Seok Choi

271, Jaun-ro, Yuseong-gu, Daejeon, 34059,
Republic of Korea

E-mail: woosuk5242@gmail.com

Abstract

본 연구는 6·25전쟁과 걸프전에서 미국이 수행한 해상봉쇄 사례를 작전 3요소인 시간, 공간, 전투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해상봉쇄의 효과와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전장에서 중국에 대한 한미 연합 해상봉쇄 방안과 한국 해군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연합 다영역봉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and lessons of maritime blockades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US) in past wars and proposes combined Republic of Korea (ROK)-US maritime blockade strategies against China for future warfare.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the cases of the Korean War and Gulf War through the three operational elements time, space, and force. The analysis shows that successful maritime blockade requires rapid initiation, sustained execution, appropriate blockade lines based on the theater situation, and mission allocation according to the capabilities of participating for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argues that a combined multi-domain blockade should be implemented against China, considering China's naval power and anti-access/area-denial capabilities. In this framework, the US would lead operations across the inner and outer blockade lines and broader domains, whereas the ROK Navy would secure maritime control in its assigned waters, deter North Korean intervention, and support blockade operations against Chinese naval mov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a combined multi-domain blockade is essential for achieving effective maritime coercion in future war.

Keywords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
작전 3요소(Three Elements of Operations),
전쟁지속능력(War-Sustaining Capability),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연합 다영역봉쇄(Combined Multi-Domain Blockade)

전사 분석을 통한 미래 전장에서 대(對)중국 해상봉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ritime Blockade Strategies Against China in Future War: An Analysis of Naval History

최우석*

해군 소령/해군대학 해군지휘참모과정 학생장교

Woo Seok Choi*

LCDR, ROK Navy/Student officer of Naval Commander & Step Course, ROK
Naval War College

1. 서론

본 연구는 미국이 적대 국가를 상대로 수행했던 해상봉쇄의 효과와 교훈을 도출하고 미래 전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중국 해상 봉쇄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대만해협 분쟁 시나리오, 미국 NSS 2025 발표 등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과 미국이 연합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방책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 소련, 이라크로 이어지는 적대 국가와 분쟁 시 해상 봉쇄를 수행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현재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QUAD, AUKUS 등 자유진영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 해군참모총장(Lisa Franchetti)은 2024 항해계획을 발표하면서 미 해군의 전략적 초점은 향후 수년 내 예상되는 중국과의 갈등을 대비하는 데 맞추는 것이라고 표명했다[1]. 반대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넘어 중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략을 주장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대진영의 결속을 확대하고 있다[2].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해상봉쇄를 결정한다는 학술적 가정 하에 과거 전사 속 미국의 해상봉쇄 사례를 분석하여 전장에서 해상봉쇄의 교훈과 의미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한국

과 미국의 대중국 해상봉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해상봉쇄, 작전 3요소

2.1 해상봉쇄

해상봉쇄는 적 또는 가상적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하여 타국과의 교역 및 통항을 못하게 하는 조치로 정의된다[3].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미국의 주요 해안과 항구가 봉쇄당하면 통상파괴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봉쇄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고[4], 제프리 킬(Geoffrey Till)은 해상봉쇄는 강대국의 전략으로 강대국이 신흥 도전국 또는 약소국과의 전쟁 시 그들의 해양사용을 통제하거나 강력한 함대를 바탕으로 한 함대결전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했다. 해상봉쇄는 특정 국가의 해상을 봉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전략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아래 표는 주요 해양 이론가들의 해상봉쇄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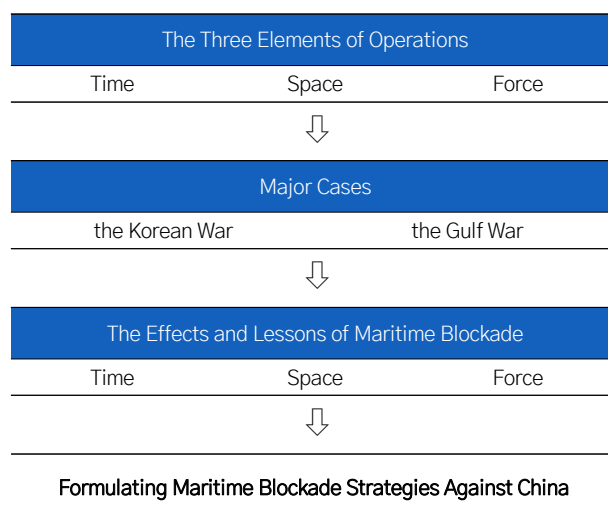
Table 1. Perspectives on maritime blockade

Maritime Strategists	Perspectives on Maritime Blockade
Alfred Thayer Mahan	A state with superior naval power can use maritime blockade to inflict severe economic damage or hardship on an adversary. Conversely, only a state that possesses comparable naval strength can resist and ultimately break such a blockade.
Julian Corbett	Depending on its purpose, blockade may be categorized as either military blockade or commercial blockade, and military blockade may in turn be divided into close blockade and open blockad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apitalize on the strategic advantages of open blockade, which induces the enemy navy to act while requiring only a minimal expenditure of effort.
Bernard Brodie	In spatial terms, blockade may be divided into close blockade and distant blockade. Maritime blockade can serve as an effective means of establishing command of the sea.
Geoffrey Till	Maritime blockade is a form of naval action undertaken by a state with superior naval power to prevent an adversary's fleet from using the sea as it intends or maneuvering to areas of its choosing; it may be categorized into close blockade and open blockade.

2.2 작전 3요소

작전술은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작전을 조직, 운용하는 것이며, 밀란 베고(Milan Vego)는 작전술의 본질을 시간, 공간, 전투력 3가지 작전요소의 조화와 균형으로 정의하였다[5]. 본 연구는 해상봉쇄의 *how to fight*를 구상하기 위해 작전술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를 위해 작전의 3요소 시간, 공간, 전투력 측면에서 해전사를 분석하였다. 시간요소는 모든 영역의 공격과 방어에 있어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며, 공간요소는 작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간적 요소를 의미한다. 마지막 전투력요소는 아군의 전투력 형태, 규모, 구성 등을 포함하며, 아군의 능력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적시적소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전의 3요소는 작전을 구상하는 핵심요소로 각 요소는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는다. 본고는 아래 분석틀과 같이 작전의 각 요소를 바탕으로 해상봉쇄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던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교훈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Table 2. Analytical framework



3. 사례분석

3.1 6·25전쟁 시 해상봉쇄 효과와 교훈

6·25전쟁 시 유엔군의 해상봉쇄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장기적 해상봉쇄를 통해 피봉쇄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압박과 해상에서의 후속물자 지원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해상에서 지상으로의 원활한

군사력 투자를 통해 전구작전에 기여하였다.

작전요소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 전쟁 초 적시적인 해상봉쇄와 유엔해군의 동·서·남해 전 해역에 대한 전방위적 해상봉쇄는 추후 해역 전반에 대한 해양통제와 전구작전에 기여하였다. 전쟁 초 한국은 북한군의 침투와 물자수송을 막기 위해 서해와 남해안에 대한 근접봉쇄를 수행하였고, 7월 2일 유엔군과 북한해군 간 최초 해전이 발생하였다. 이후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한반도 해역에 대한 본격적인 해상봉쇄 작전을 개시하였으며[6], 장기간에 걸친 해상봉쇄의 성공으로 북한은 육로를 제외하고 해상을 통한 군수물자 지원이나 생필품의 공급을 철저히 배제하게 되었다.

(공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당시 전구작전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봉쇄선 구축과 압도적 해군력을 이용한 전방위적 해상봉쇄를 통해 지상군에게 필요한 적시적소에 군사력을 투사했다. 전쟁 초기 미국의 전력은 순양함 1척, 구축함 4척, 호위함 1척이었지만 1950년 7월 4일 일방적으로 봉쇄선을 설정하여 해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7].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해상봉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동시에 전쟁 초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8]. 또한, 전쟁 전반에 걸친 해상봉쇄는 해상에서 적 해군력의 기동을 제한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 등 주요 전구작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전투력) 6·25전쟁 간 해상봉쇄 시 한국과 미국은 한국해군 능력을 고려하여 각자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해상봉쇄를 수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서해 37도 이북은 유엔군이, 동·서해 37도 이남은 한국 해군이 주도했다. 한국군은 전투정 위주의 전력임을 고려하여 연안에서 근접봉쇄를 실시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항공모함, 구축함 등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해역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시 해상봉쇄는 각 부대의 능력과 기능을 고려한 임무 분배와 피봉쇄국에 비해 압도적인 해군력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3.2 걸프전 시 해상봉쇄 효과와 교훈

걸프전 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은 이라크

Table 3. Lessons of maritime blockade from the Korean War

Time	• The Necessity of Rapid Maritime Blockade for Securing the Initiative in the Initial Phase of War • The Need for Sustained Maritime Blockade
Space	• The Nee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Initial Blockade Line Based on the Operational Situation in the Theater • The Need for Maritime Blockade to Enable Subsequent Operations, such as Naval Gunfire Support and the Disruption of Enemy Sea Lines of Transport • The Need to Shape Favorable Conditions for Major Operations, including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Force	• The Need to Assign Missions in Accordance with Unit Capabilities and to Maintain Overwhelming Naval Superiority

의 쿠웨이트 철수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라크의 핵심해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해상봉쇄를 실시했다. 미국은 해상봉쇄를 통해 이라크로 하여금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고립을 야기했고, 해상에서 공중 및 지상으로의 군사력 투자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했다. 작전요소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 미국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동시에 이라크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UN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라크의 반응이 없자 이라크의 실질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안 661호에 의해 해상봉쇄를 시작했다. 미국이 요구한 철군 시한을 넘기며 전쟁이 발발한 1991년 1월 17일부터 종전시점인 2월 28일까지 미국의 대이라크 해상봉쇄는 계속되었고, 걸프전 전체 기간 동안 7,500여회의 검문, 960회 이상의 승선임검 등으로 원유 수출에 의존했던 이라크의 경제와 전쟁지속능력은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다[9].

(공간) 미국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15일 만에 해상봉쇄를 결정하고, 이라크의 반응에 따라 해상봉쇄의 수준을 강화했다. 최초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해역에 대한 해상봉쇄를 시행했고, 1990년 9월 8일 다국적군과 함께 전방위적 해상봉쇄를 시행하였다. 홍해와 아덴만은 미국, 프랑스 등 4개국이 봉쇄하고, 페르시아만과 북아라비아해는 미국, 호주 등 13개 국의 함정이 대대적인 해상봉쇄를 수행하여 해상을 통한 이라크의 모든 통상을 파괴시켰다. 장기간 지속된 해상봉쇄로 인해 사막의 폭풍작전 시 항공모함 6척에 탑재된 400여대의 항공기가 공중을 장악하고 이라

크의 주요 표적에 대한 타격이 가능했다[10]. 미국은 해상봉쇄를 통해 조성된 여건을 확장하여 항공기를 통한 공중우세를 확보했으며, 이라크 전역에 대한 다국적군의 효과적인 군사력 투사가 가능토록 했다.

(전투력)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은 미 중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작전구역과 임무를 분배하였고, 각 국 수석 해군장교를 지역 ‘협조관’으로 임명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해상봉쇄를 수행했다.

Table 4. Lessons of maritime blockade from the Gulf War

Time	• Th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a Preemptive Maritime Blockade • The Need for Sustained Maritime Blockade to Undermine the Adversary's Capacity to Wage War
Space	• The Need for an All-Encompassing Maritime Blockade to Impose Economic Costs on the Blockaded State • The Need for Maritime Blockade to Facilitate the Projection of Military Power onto Land
Force	• The Need to Assign Missions in Accordance with Unit Capabilities and to Maintain Overwhelming Naval Superiority

4. 미래 전장에서 대중국 해상봉쇄 방안과 한국의 역할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만해협 위기로 인한 양안전쟁 발발 시 한국은 미국 중심의 연합군에 편성되어 직접 개입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11]. 미국과 중국의 전쟁 발발 시 미국은 과거 사례와 전략적 이점을 고려하여 해상봉쇄를 수행할 것이라 판단하고([12], p. 386), 본 연구는 미국의 해상봉쇄 방안과 한국의 역할을 제언한다. 비록 중국은 과거 사례의 대상국보다 훨씬 강한 해양전력과 A2/AD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상봉쇄의 본질인 신속한 개시, 지속성 확보, 봉쇄선의 적절한 설정, 참여전력 간 임무 분담이라는 작전적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적용 방식은 원거리·다영역·유무인 복합 형태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사례분석을 통해 시간요소에서는 적시적, 지속적인 봉쇄의 필요성, 공간요소에서는 전방위적인 봉쇄와 차후 작전을 위한 여건조성 측면에서 봉쇄의 필요성, 전투력요소에서는 능력과 기능을 고려한 적시적소 전력 배치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피봉쇄국의 경제적 타격과 향후 작전

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봉쇄 수준을 강화하는 ‘연합 다영역봉쇄’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세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 전쟁 초기 대만으로의 추가적인 중국의 군사력과 군수물자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초 봉쇄선 구축이 필요하며, 이후 전쟁 장기화 시 중국의 전쟁지속능력 감소와 통상파괴를 위한 지속적인 원거리 봉쇄가 수행되어야 한다.

(공간) 전쟁 초기 가용한 전력을 동원하여 전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최초 봉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봉쇄선을 통해 최초 대만 침공 후 추가 투입되는 중국의 군사력과 군수물자를 차단해야 하며, 이러한 논리로 오키나와와 대만을 잇는 제1봉쇄선이 지정되어야 한다. 제1봉쇄선을 통해 중국 북부/동부전구해군의 전력 투입을 저지할 수 있다. 다만, 제1봉쇄선은 중국의 A2/AD 범위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DF-21D) 능력을 고려하여 미국의 정찰위성을 통해 감시하고, 장거리 타격자산과 한·미 잠수함 그리고 미국의 무인함대를 통해 중국 상륙부대와 전투함을 저지하는 연합 다영역봉쇄를 수행해야 한다.

초기 전쟁주도권을 가져왔다면 전쟁 중·장기 국면에서는 중국의 A2/AD 능력을 기준으로 한 내부, 외부 봉쇄선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말라카해협부터 오키나와에 이르는 제1도련선에 대한 전방위적 해상봉쇄를 통해 중국의 통상을 파괴해야 한다. 다만, 중국의 A2/AD 능력을 고려하여 미사일(DF-21D) 사거리 외곽 ‘외부봉쇄선’에는 분산해양작전(DMO) 개념에 입각하여 항모전투단을 배치하고 ‘내부봉쇄선’에는 미 유령함대(ghost fleet) 개념을 적용한 해양 무인체계 전대, 군집 UAV와 잠수함이 진입해야 한다. 또한, 전장 전반에 대해서는 정찰위성을 통해 전장을 가시화한다. 미래 전장은 전 영역 동시통합전이 될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봉쇄를 달성하는 현대적 개념의 ‘연합 다영역봉쇄’를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부·외부 봉쇄선을 통해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고 A2/AD를 무력화했다면 항모전투단과 공군기지를 통해 이륙하는 항공기를 통한 공중봉쇄, 그리고 투입된 지상군과의 연계를 통한 지상봉쇄까지 달성하는 영역의 확장도 필요하다.

(전투력) 각국의 능력과 기능에 맞춰 임무를 분담해야 한다. 미국은 연합 다영역봉쇄의 주축으로서 내부·외부 봉쇄선 그리고 전 영역에 이르는 봉쇄에 전

력을 투입하고, 한국은 능력과 기능을 고려하여 연합 해상봉쇄선에 동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해역함대는 기존 관할해역 내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여 북한의 개입을 적극 차단한다. 그리고 서해 및 제주 남방 해역에 잠수함 전력을 배치하고 주요 도서지역에 대함 미사일을 배치 및 운용하는 등 대만 전선으로 남하하는 북부전구해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5. 결론

과거 전사 사례 분석을 통해 해상봉쇄의 효과와 교훈을 분석하고 작전 3요소에 기초한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에서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능력과 위협을 고려했을 때 성공적인 해상봉쇄를 위해서는 연합 다영역봉쇄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북 위주였던 한미 동맹의 시선을 잠재적 위협인 중국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미 연합 작전계획 발전 시 연합 다영역봉쇄 개념이 구체화되고, 작전을 위한 전력 발전 방안 등 좀 더 심화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 [1] U.S. Navy, Navigation Plan 2024,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2024.09, p. 6.
- [2] Byung-kwang Park, An Evaluation of China's Global

Initiative Strategy: Focusing on Strategic Intent and Feasibility, INSS Strategic Report No. 347, 2025, p. 1.

[3] Naval Force Analysis, Test and Evaluation Group, Glossary of Maritime Strategy Terms, Republic of Korea Navy Headquarters, 2017, pp. 128-129.

[4] Russell F. Weigley, 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p. 293.

[5] Milan N. Vego, Joint Operational Warfare: Theory and Practice, U.S. Naval War College, 2009, pp. 15-20.

[6] Republic of Korea Navy Headquarters, The Korean War and ROK-U.S. Naval Operations, Naval Force Test and Evaluation Group, 2020, p. 253.

[7] Republic of Korea Navy Headquarters, The Korean War and ROK-U.S. Naval Operations, p. 329.

[8] Byeong-eun Yang, The Contemporary Value of Naval Blockade, Naval War College Research Papers, 1992, pp. 132-133.

[9] Republic of Korea Navy Headquarters, Naval Operations in the Gulf War, Republic of Korea Navy Headquarters, 1992, p. 35.

[10] U.S. Department of Defense,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 Final Report to Congress, U.S. Department of Defense, 1992, pp. 221-222.

[11] Chang-bin Jeon, The Rise of Security Threat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Korean Military, Naval War College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Research Project, 2023, p. 23.

[12] Sean Mirski, 'Stranglehold: The Context, Conduct and Consequences of an American Naval Blockade of Chin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6, NO. 3, 2013, pp. 385-421.